

ELLE SPECIAL

April 2025 | 권아름 에디터

ELLE SPECIAL



1 자연국가-Nature Rules(2025).
2 태도는 시가 되고 태도는 철학이 되는 작업을 선보이는 최재은 작가.
3 2023년 일본 도쿄 긴자 메루메르메르 호텔에서 열린 개인전 <세로로 삶(La Vita Nuova)> 전경. 오키나와의 깨끗한 산호초를 전시장으로 소환한 대규모 설치미술 작품 '하얀 죽음(White Death)'.



JAE-EUN CHOI

최재은의 예술은 작은 존재들을 인정하고 함께 호흡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986년 '월드 언더그라운드 프로젝트(World Underground Project)'에서 휴과 일본 전통 종이인 와시를 변형해 만든 종이로 시간이 개입하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시간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됐나요 휴과를 통해 자연과 시간이 같은 것임을 느꼈어요. 모든 생명은 시간에 묶여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 같은 흐름을 따르고 있죠. 흔히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보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삶을 이어가는 수많은 개별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적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의 이름조차 모를 때가 많을 거예요. 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이름을 부르고, 기록하는 행위는 곧 그 존재를 인정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When We First Met) 작업도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자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죠. 작은 들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알게 되면 이름 제기로 사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에 한 발짝 다가가는 거죠.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일일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기부나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와 작은 감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3월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자연국가 Nature Rules> 전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나요 자연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들의 타전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관람자들이 DMZ 산림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전시에서는 가을 숲을 선택하며 채집한 색과 자연에서 들은 소리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평면 작품과 텍스타일 작업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40여년 동안 자연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물의 순간이 있었을테죠. 자연은 이해할수록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존재인데, 우리는 여전히 빠른 속도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생활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날의 환경 문제는 20세기의 속도 중심적 사고와 물질적 가치 기준이 낳은 결과이기도 해요. 이제는 좀 더 조화로운 삶의 속도를 찾고, 가치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실천이에요.



COURTESY OF ARTIST,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KUKJE GALLERY/©NAC&A PARTNERS INC